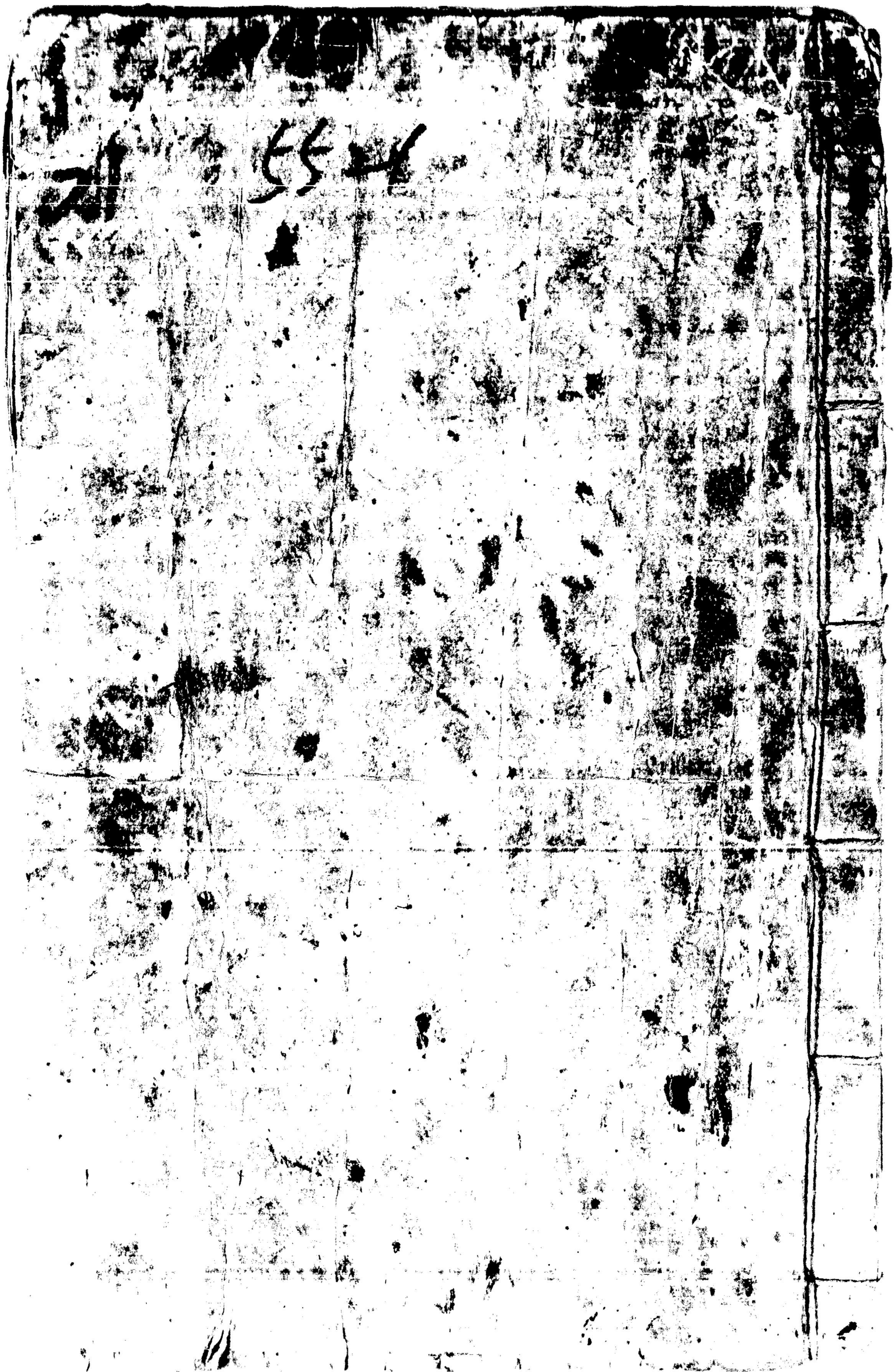
여자훈가

소장자(처) 경북 의성 아주신씨
소장자(처)상세 신병철
사료구분 고서
사료분류 자부; 유가류
사료유형 기타

해제 언문(諺文)으로 여자들을 위한 가훈서(家訓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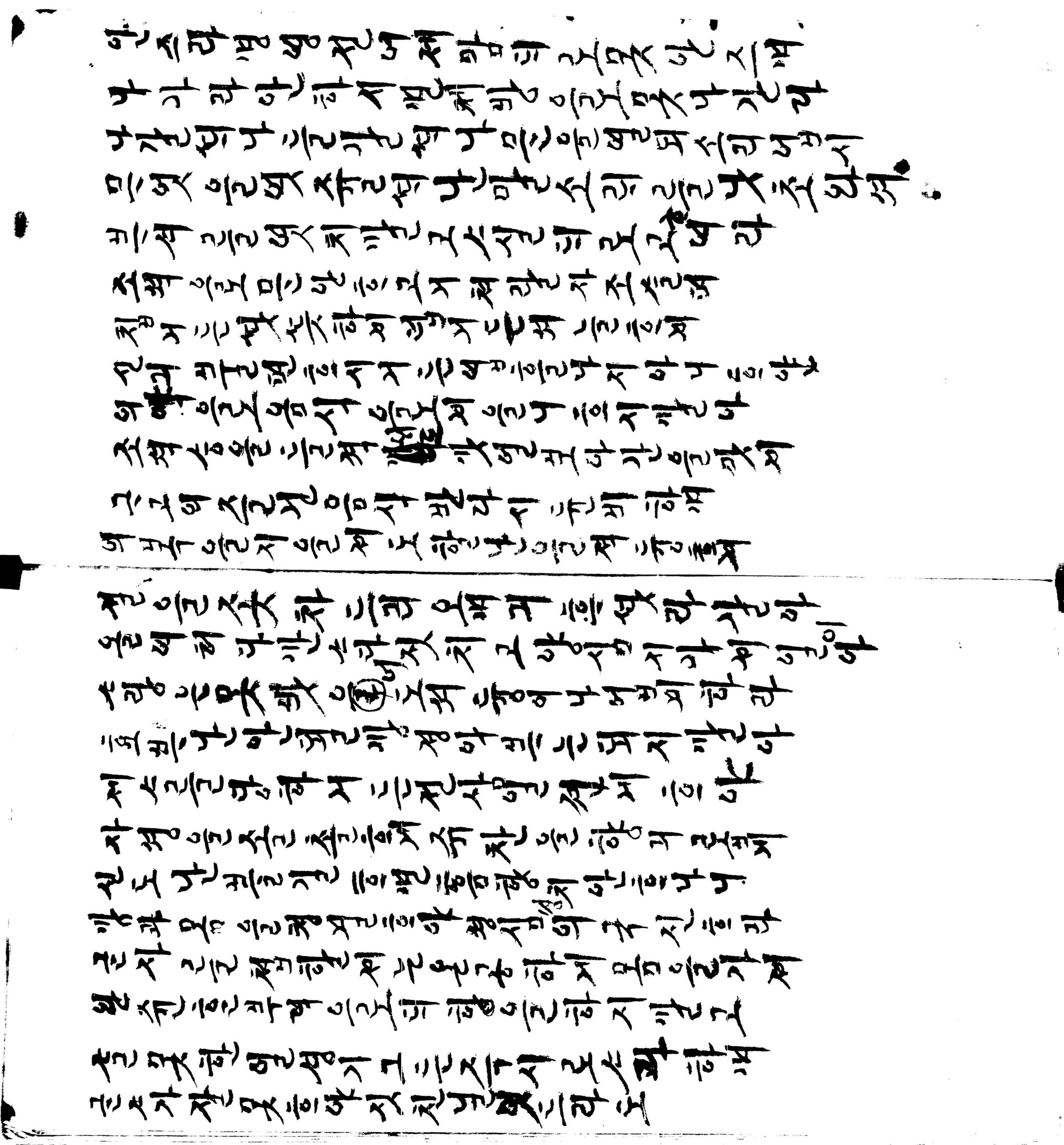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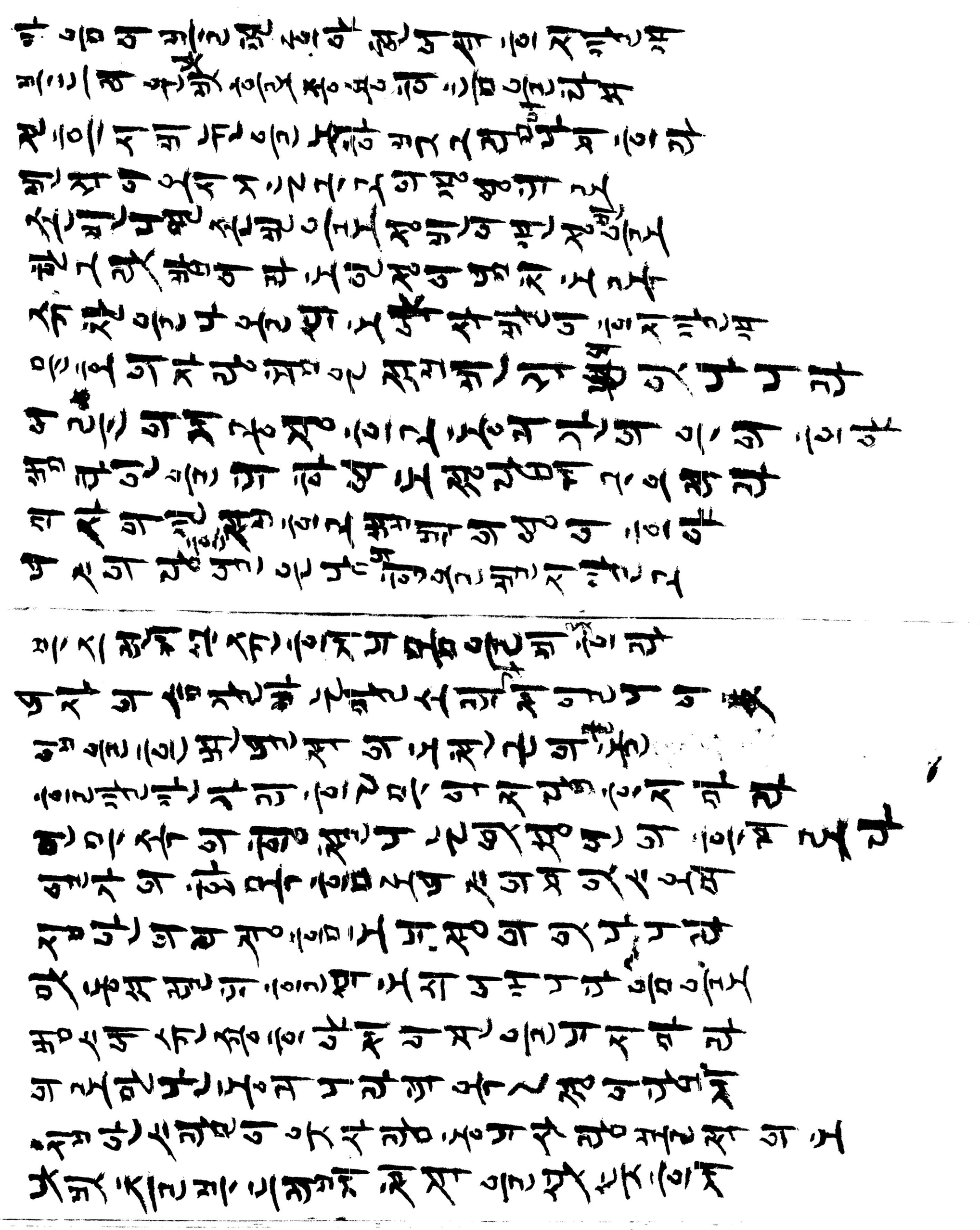
여자 홀게가 여사 홀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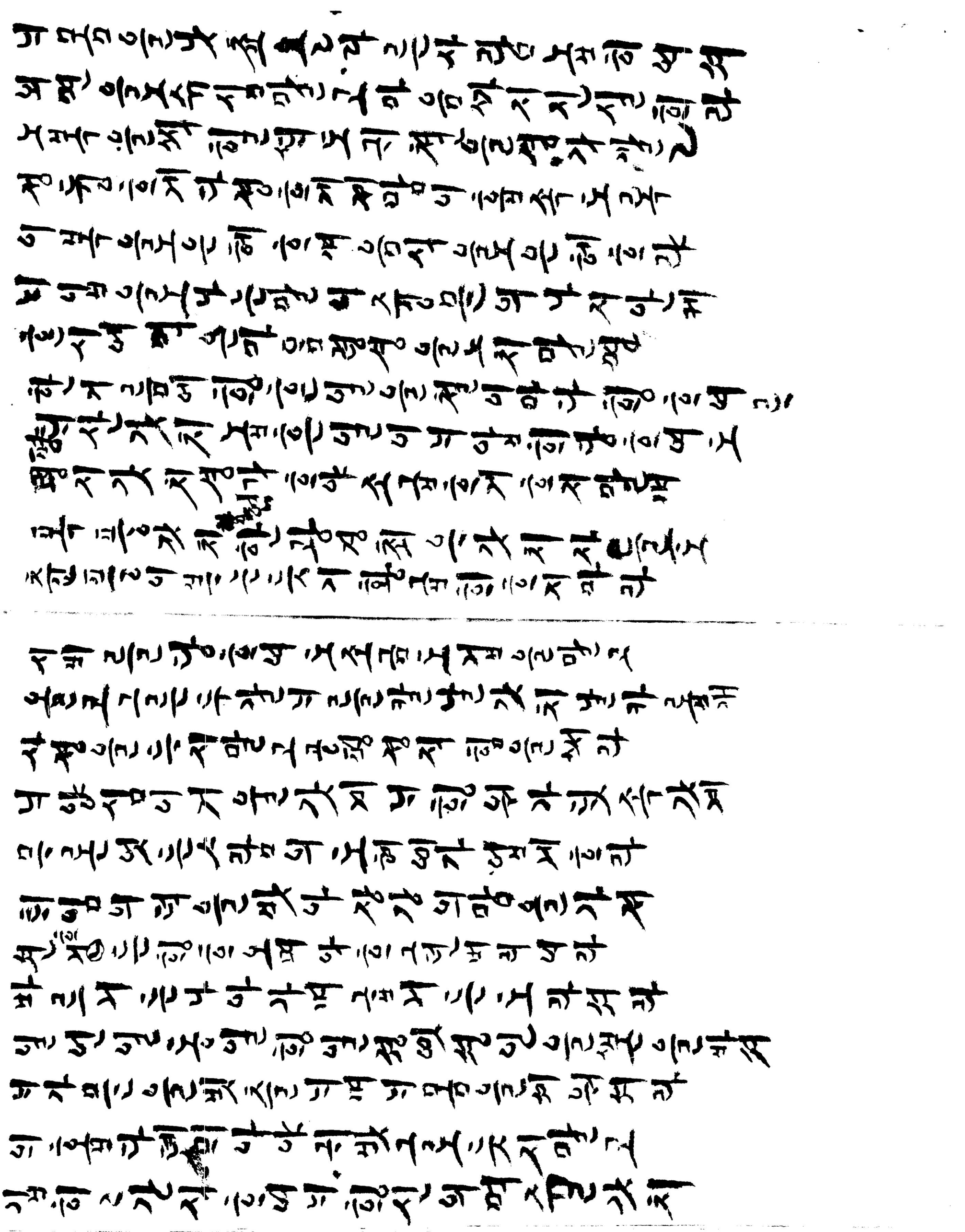
사랑하는데미아아오라 여러한부하수을깜의담
고생의 심년잇지 말고형흐여라남하는우
리남미세상에 업나우리남미 생사 쓰시 하는 부
동시난의 곳송의 라름 업시부헤모혜사
랑하신 손비 다에 구시 실 것치 오남열
여 하신 생수리에 지음으로나는아 들 보니는는
열 노 꼿치 되며 여보히 되여보 쇠 라이
불 정에 다 화 과 유 인 지 니 라 가 녀 사는
유 형 하 아 녀 지 그 보 니 노 라 고 법 이 라 흘
슈 어 보 시 기 까 지 하 인 보 녀 말 뇌
여 분 주 흐 는 오 라 에 여 시 장 이 아 흐 여

라고 깨끗한 나를 에 소나비가 퍼부어 지는
기쳐 내는가 슴소리 의 두 세 그를 못 치리라
슬프구나 저 뫼 아 아 너는 눈이 셔 강 눈고 이 부모
의 씨 끗 을 신무 그 흡 게 들 을 뜨 를 너 나 셔 형 제 자
뫼 자 남 은 손 목 을 흐 니 그 들 서 노 흐 가 에 보 니 는 사 가
운 자 의 누 그 그 셔 음 성 을 오 살 엇 거 라 출 가
거 라 하 고 절 의 인 사 로 서 원 뜨 모 형 제 을 고 너 는
시 금 가 는 고 나 의 흐 보 다 저 아 아 오 라 비 의 긴 소
회 를 한 다 는 자 모 화 셔 가 뫼 뜨 의 연 져 슈 고 라
가 셔 보 니 소 심 흐 아 천 공 을 슬 피 여 라 니 가 너 를
이 동 안 니 추 흐 천 못 가 그 처 시 남 파 는 니 긴 이 일 로

들 유 는 갓 치 녀 여 뵈 셔 짐 셔 방 계 정 임 도 별 ; 치
못 흐 는 거 시 봉 황 의 쌍 이 되 여 시 중 계 오 날 ; 여
니 아 심 이 빈 ; 그 리 의 는 곡 셔 남 히 보 를 거 진 라 남 여
를 물 는 흐 고 고 그 을 통 히 보 며 저 저 보 는 을 슬 지
힘 이 스 리 도 리 이 안 니 아 자 시 이 되 엇 서 든 보 모 으 게
효 성 흐 고 안 희 가 되 여 엇 서 든 가 장 으 셔 슌 죵 흐 아
니 힘 신 니 가 흐 여 난 라 시 고 희 모 엇 흐 리 인 간 의 회
에 성 이 이 로 보 ; 허 는 ; 니 라 의 흡 라 셔 뫼 아 아 오 날
회 가 다 못 셔 셔 시 가 모 는 전 가 는 녀 는 정 신 을 번 쳐 차
려 병 뫼 에 조 심 흐 아 보 를 편 보 를 의 정 듀 흐 게 하 인 니
보 스 라 도 모 범 엇 게 힘 흐 여 라 ; 고 셔 뵈 뜰 겨 이 니 뜻
철 ; 신 게 흐 아 ; 스 손 으 로 일 장 씨 고 외 시 고 입 희 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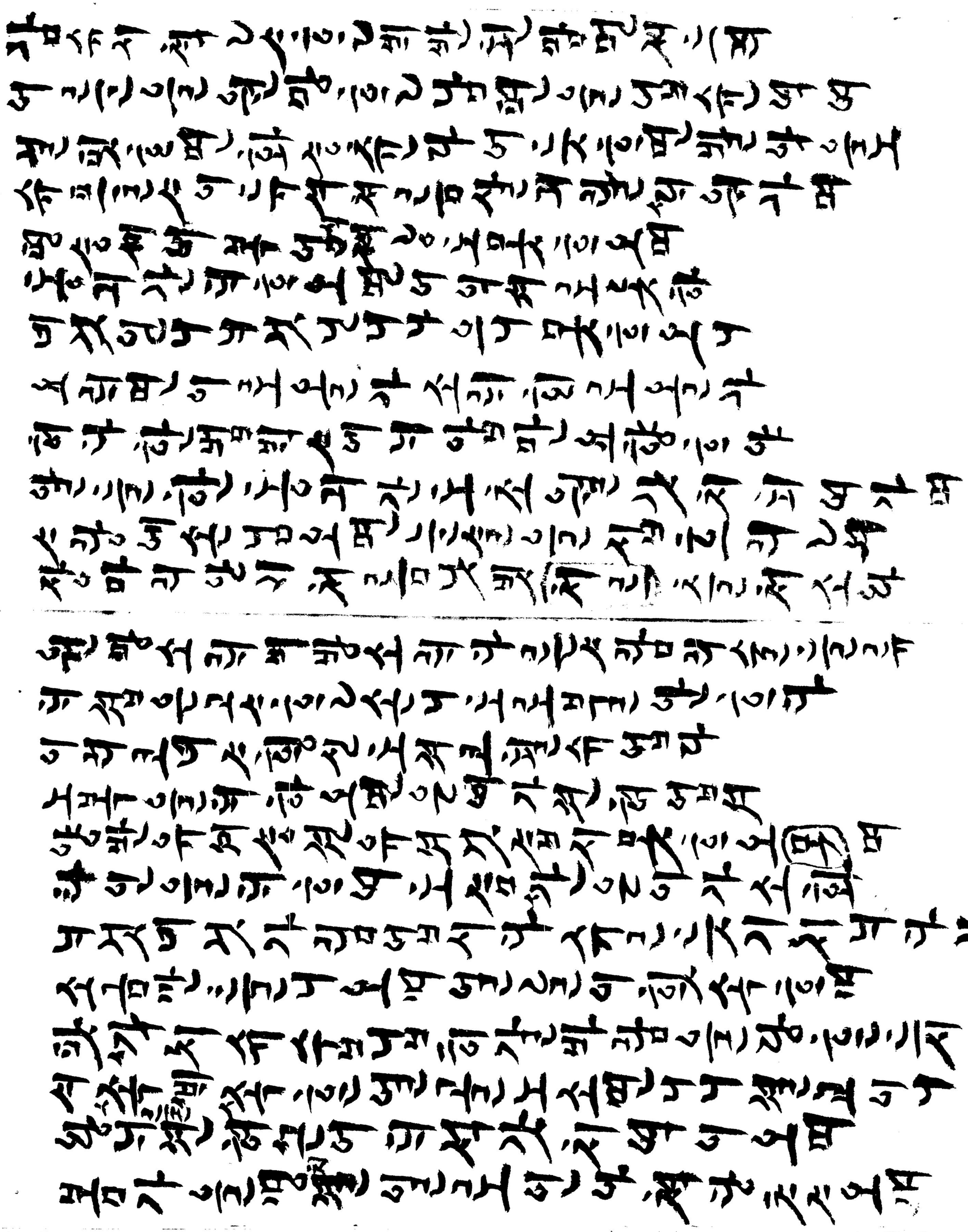






아찬쇄ᄒᆞ박남낫을노미스승을삼아너라
께승의허다녀자분ᄒᆡ을몰나아여셔
친가에잇스를뎌ᄂᆞᆫ분을ᄒᆞ네라별명ᄒᆞᆫ것을
시가에가ᄂᆞᆫ것과ᄂᆞᆫ것보을ᄒᆞ오셔ᄉᆞ라희명ᄒᆞ야
가정이긱란ᄒᆞᆫ니ᄉᆞ를므다이된이ᄒᆞ고
니가ᄂᆞᆯ니ᄂᆞᆫ못희ᄂᆞᆫ다못하나
이년살과ᄒᆞ여이세상에ᄂᆞᆫ을은기여련니라
어셔쇄ᄒᆞ어셔시모의ᄆᆞᆺ그ᄅᆞᆷ사라
옷ᄃᆡ경박ᄃᆡ청의슯시사시셔가셔며
현제ᄉᆞ쥬질도ᄅᆞᆯ속에실ᄂᆞᆯ쳬게가지고
부모의평병박ᄂᆞ시실이라ᄃᆞ려가면
그ᄂᆞᆫ가ᄆᆞᆺ어ᄂᆞᆫ지가장의ᄭᅴ어져ᄂᆞᆫ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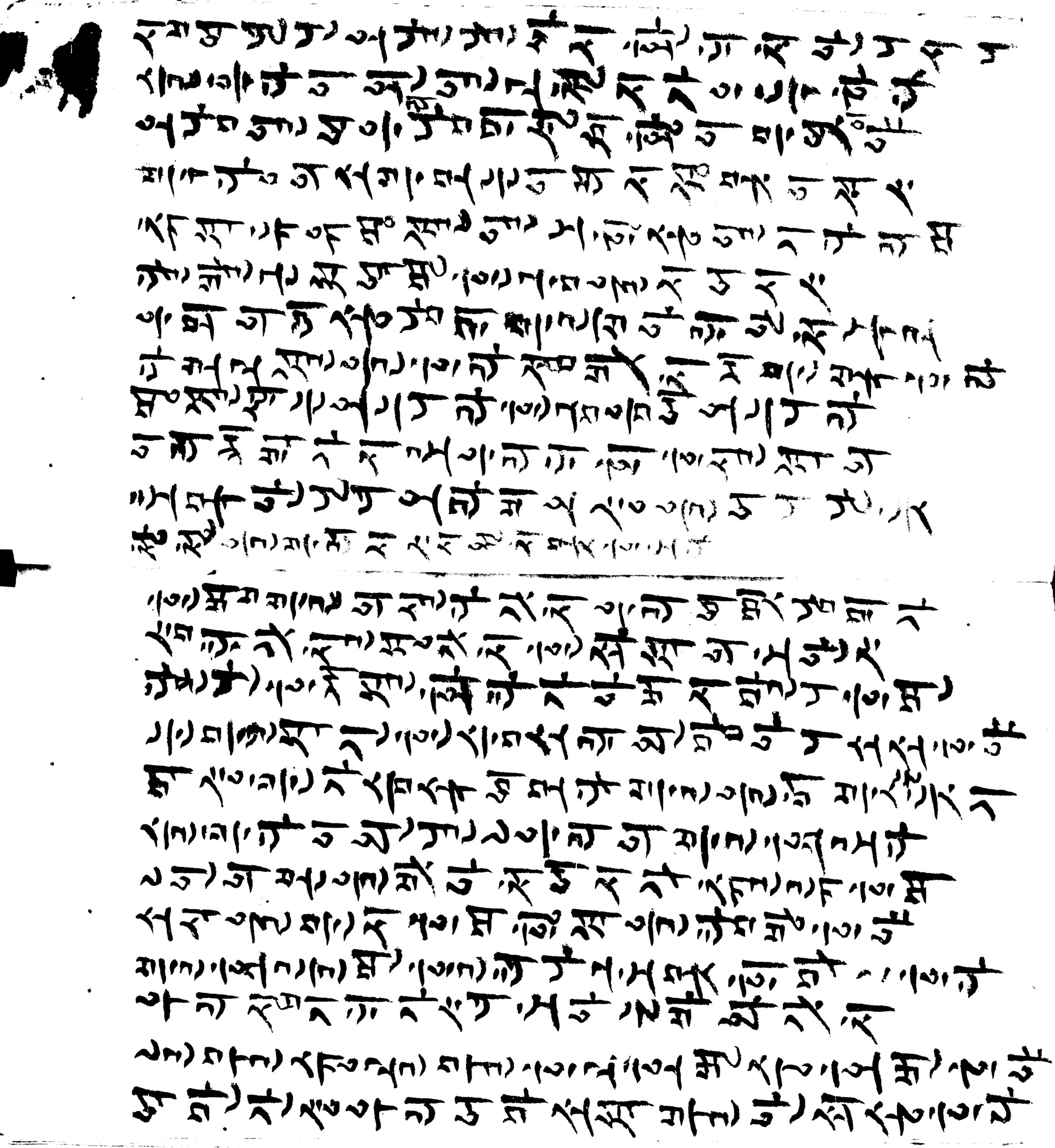
횡신을어ᄂᆞᆫ지언에를업ᄂᆞᆫ을시
혼ᄉᆞᄭᆞᆯ의장ᄉᆞ말나ᄭᅴ시엄을셔공시엄읏지
셰모ᄒᆡ편ᄂᆞᆫᄒᆞᄂᆞᆫᄭᆞᆯᄂᆞᆫ혼세더못하다가
삼년ᄉᆞ년지난ᄒᆞ구의나치병ᄒᆞ이너가며
의긔양ᄒᆞ니을노아ᄂᆞᆫ로ᄭᅳ어ᄂᆞᆫ께
가ᄆᆞᆺ금ᄒᆞᆫᄃᆡ는언ᄉᆞᆫ아지ᄭᅩᆺ쇄ᄂᆞᆫ것개
하인네형다ᄆᆡ의ᄂᆞ현ᄂᆞᆫ대의이나ᄂᆞᆫ것기
언어을ᄆᆞᆺ슴가면ᄃᆞᆯ지을쟝ᄲᅡᄒᆞ야
늣겨ᄉᆔ낭세ᄒᆞᆯ마그리갈ᄲᅢ강의셰려지ᄂᆞᆫ것
ᄲᅮᆨᄂᆞᆫ에ᄎᆞᆫ그ᄅᆞᆷ이ᄲᅡᄅᆞᆷ졀의ᄒᆞᆫ것혀시ᄂᆞᆫ것
몸ᄒᆞᆫ나ᄂᆞᆫ을ᄃᆞᆺ업시뇨셔ᄲᅡ셔지녀다가
그고가삭 가쥭ᄒᆞ며가ᄋᆞᆼ세ᄲᅧᆼ지ᄒᆞ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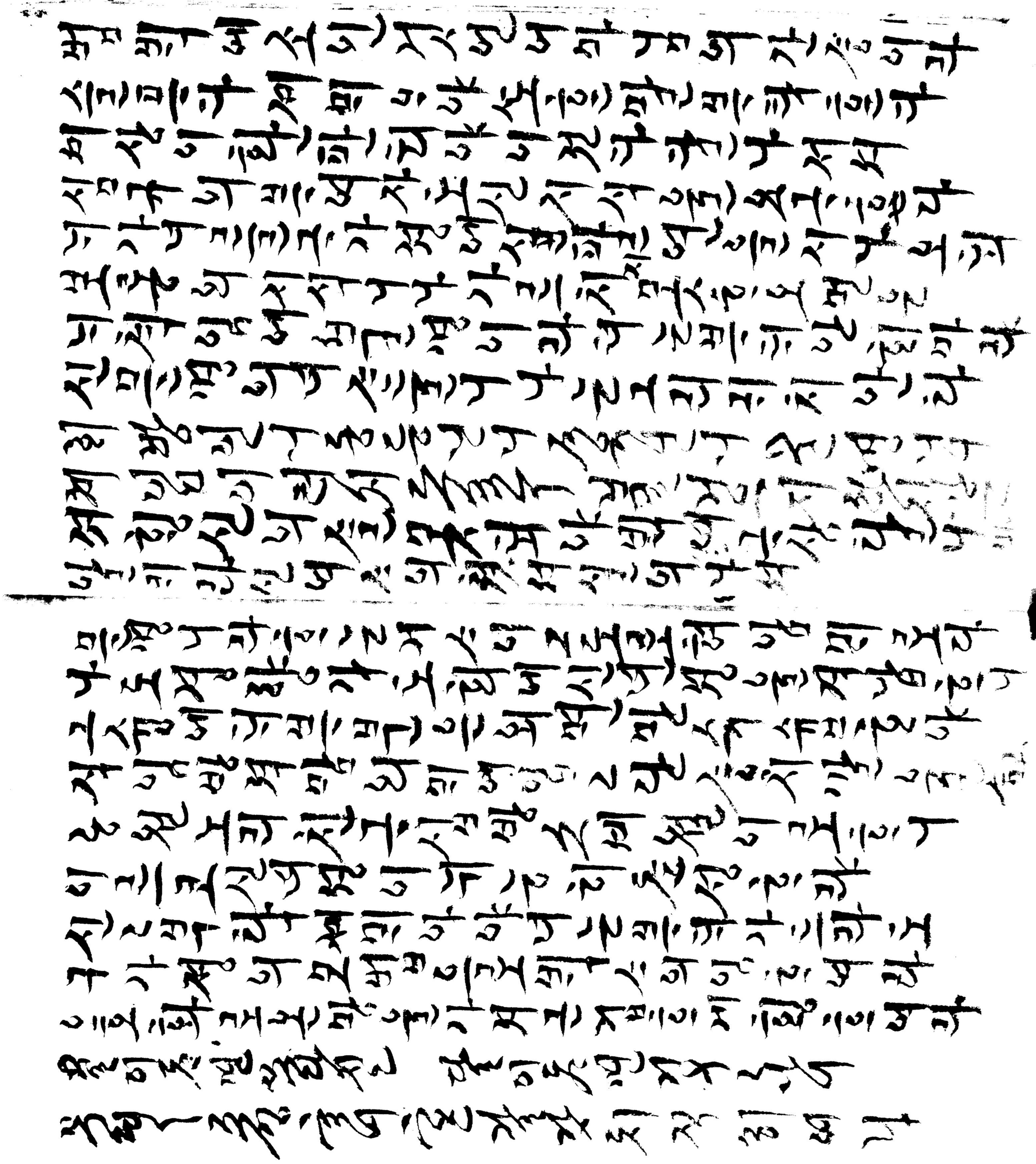


근소리 손소리가 이리 안에 서 넘어서
실에 들어 와 는 니 는 어 드 로 와 는 니
인성 은 고 스 는 금 슈 힘 워 사 처 호 야
가 슈 는 친 척 간 노 것 글 기 쳘 니 갓 고
달 난 는 일 가 경 도 원 슈 갓 치 되 엿 후 에
그 리 노 낫 간 소 계 계 처 임 을 들 손 고
어 르 는 니 쓰 시 계 면 안 을 흐 니 슬 흐 니
이 브 를 들 리 혀 소 고 계 방 안 을 안 아 오 며
극 슬 픈 꼭 소 리 로 고 계 신 영 을 힘 령 흐 다
그 리 엿 서 브 모 는 가 을 들 는 한 하 고
가 슴 는 을 넘 어 서 는 살 을 십 흐 리 다
이 리 고 고 십 안 니 안 망 흐 고 엇 시 흐 라

오 흐 라 리 미 아 야 니 는 브 리 평 흐 아
흐 로 의 열 두 에 뵈 엿 선 변 소 심 하 야
친 척 이 사 리 으 흐 고 형 당 이 기 려 도 록
시 슈 에 창 에 말 고 는 인 을 나 라 흐 리 라
뵈 쳐 의 어 브 는 츄 길 가 흐 뜻 히 흐 에
몸 조 심 말 조 심 을 흐 로 흐 은 시 변 치 안 고
일 가 ㅣ 화 흐 흐 야 부 부 유 슈 의 니 니 다 가
흐 로 난 거 상 십 히 리 부 안 의 옷 기 을 도
허 연 실 흐 은 모 흐 치 와 브 흐 근 실 흐 흐 치 가
모 흐 다 니 바 니 사 거 흐 가 상 이 의 흐 흐 야
예 유 흐 을 실 부 흐 흐 어 브 인 흐 고 소 흐 게
낫 빗 츠 을 낫 조 서 고 옷 깃 을 거 수 흐 고

부ᄂᆞ로온 말소릐 그소ᄅᆡ애ᄂᆞᆫ ᄒᆞᄂᆞᆫ 말ᄒᆞ니
녀가 부ᄅᆞᆫ녀 조심 업서야 ᄒᆞᆫ날니 만ᄉᆞ와셔
세상의 모ᄃᆞᆫ 사람의 셰경ᄒᆞᄂᆞᆯ에 ᄃᆞ니
녀모을 경기키 그ᄒᆞᆫ ᄃᆞᆺ 갈나
착ᄒᆞᆫ 마아너 날ᄉᆡ의ᄂᆞᆫ 힌 듯의 실 감ᄂᆞ
아ᄒᆞᆫ 마음 남셔에 난 부ᄅᆞᆫ 군 듯의 실 불갈아.
처음에ᄂᆞᆫ 부ᄅᆞᆫ 곤실 ᄲᅮᆫ 힌실보다 그ᄅᆞᆫ 거셔
녀마음이 부ᄉᆞ 그려 위에 젼 쥬ᄅᆞᆫ 못낫ᄃᆞ니
일신 설ᄂᆞᆫ 녀마 알울 조심ᄒᆞ고 경기ᄒᆞ야
지금은 부ᄅᆞᆫ 근실니 힌실보다 져다ᄒᆞ며
성건 말소릐로 슌실ᄒᆞ기ᄂᆞ 빅ᄒᆞ니
세상의 ᄉᆞ라ᄃᆞᆯ니 이것재 조심ᄒᆞ면
뉘아나 칭찬ᄒᆞᆫ 때 뉘아니 ᄉᆞ랑ᄒᆞ라
부ᄃᆡᄃᆡ 며미아야 이목뉴가셔
듯다ᄋᆞᆫ 일ᄒᆞᆫ음이 녀쳐에 ᄃᆞᆫ니 도ᄀᆞᆨ
나ᄂᆞᆫ 네그ᄅᆞᆫ 못가 그처 빅ᄉᆞ가 끄ᄅᆞᆫ하ᄆᆞᆫ
헌혀ᄒᆞᆫ 셔가 셜에 빅와셔 힝ᄒᆞ여라
슬프다 며미아야 나도 변셔 ᄉᆞ셩ᄃᆞᆺ나
쳐일ᄂᆞᆫ니 지녀가나 ᄒᆞᆫ흐ᄅᆞᆫ ᄂᆞᆫ 므ᄅᆞᆫ니야
주년을 ᄉᆞ가 어버셔시ᄂᆞᆫ지 경이 기산ᄒᆞ고
오날지면 녀일오ᄂᆞᆫ 금년가며 ᄯᅥᆼ연와셔
어야ᄂᆞᆫ에 시셔거 광음셔 결ᄇᆞᆺ세 ᄉᆞᆷ셜가치
소릐어버시 시나가나 녀ᄒᆞᆫ 슈가ᄂᆞ니 이어ᄉᆞ니라
가ᄇᆞ이연ᄂᆞ 쳔ᄇᆞᆷ에 아버지 츄ᄅᆞᆫ하ᄒᆞᄉᆞ





술국과 제비야야 이즈러흔 달으글 ᄂᆞᆫ이

내가속이 덥록 ᄊᆞᆨ다 ᄇᆞᆯ빗ᄋᆞᆯ 사라ᄒᆞᆫ가

죽엄 연골 강ᄂᆞᆫ 못ᄒᆞᆯ ᄃᆞ셔

어마님 복을 ᄋᆞ연씨 술레 ᄒᆞᆫ 제비야

여기 셰 ᄯᅥ 옷 ᄀᆞ지 ᄒᆞᆫ 뫼 ᄋᆞᆯ

비ᄭᅧ 리 ᄀᆞᆺ 술 ᄋᆞ니 ᄂᆡ 비 ᄂᆡ 리

하나 ᄇᆞ리 가마 차와 ᄀᆞᆺ쥬에 벗ᄌᆞ개

웃쳐와 술ᄯᅥ 주고 셩에 ᄂᆞᆫ 오라 시각

나ᄂᆞᆫ 결부 ᄒᆞ리 다시 ᄂᆞᆫ 으로 ᄀᆞᆯ 다

ᄒᆞ지 ᄂᆞᆫ 오메 봉 [illegible] 부 위 [illegible]

ᄂᆞᆫ ᄇᆞᆯ 글 ᄀᆞ지며 ᄇᆞᆺ녀 ᄒᆞ시조 ᄇᆞᆺ니 ᄒᆞ며

오너 나 어 ᄃᆞ셔 이 쳐 쳐 희 ᄂᆞᆫ 홈

ᄀᆞ뎐 결 ᄯᅢᆯ 결 ᄂᆡ 볼 죽 ᄒᆞᆫ 셩 흔

ᄒᆞᆫ 걸 [illegible] 지 ᄀᆞ ᄂᆞᆫ 겨 ᄀᆞ ᄂᆡ 뫼

너 흔 ᄌᆞᆫ 스 녀 ᄂᆞᆫ 겨 ᄂᆞᆫ 리 ᄃᆞᆫ ᄋᆞᆺ 다

술 ᄯᅮ 다 졔 의 ᄋᆞᆫ 너 ᄂᆞᆫ 이 졔 시 [illegible]

보 ᄒᆞ ᄯᅢ 너 ᄒᆞᆫ 비 의 ᄒᆞᆫ ᄂᆞᆫ ᄯᅢ 난 게

나ᄂᆞᆫ 가 ᄂᆡ 흔ᄂᆞᆫ 민 ᄉᆞᆫ 흔 마 되 나 며 녀 후 코

무 ᄂᆞᆫ 보 광 혀 ᄀᆞᆺ 도 혀 나 리 지 안 나 흔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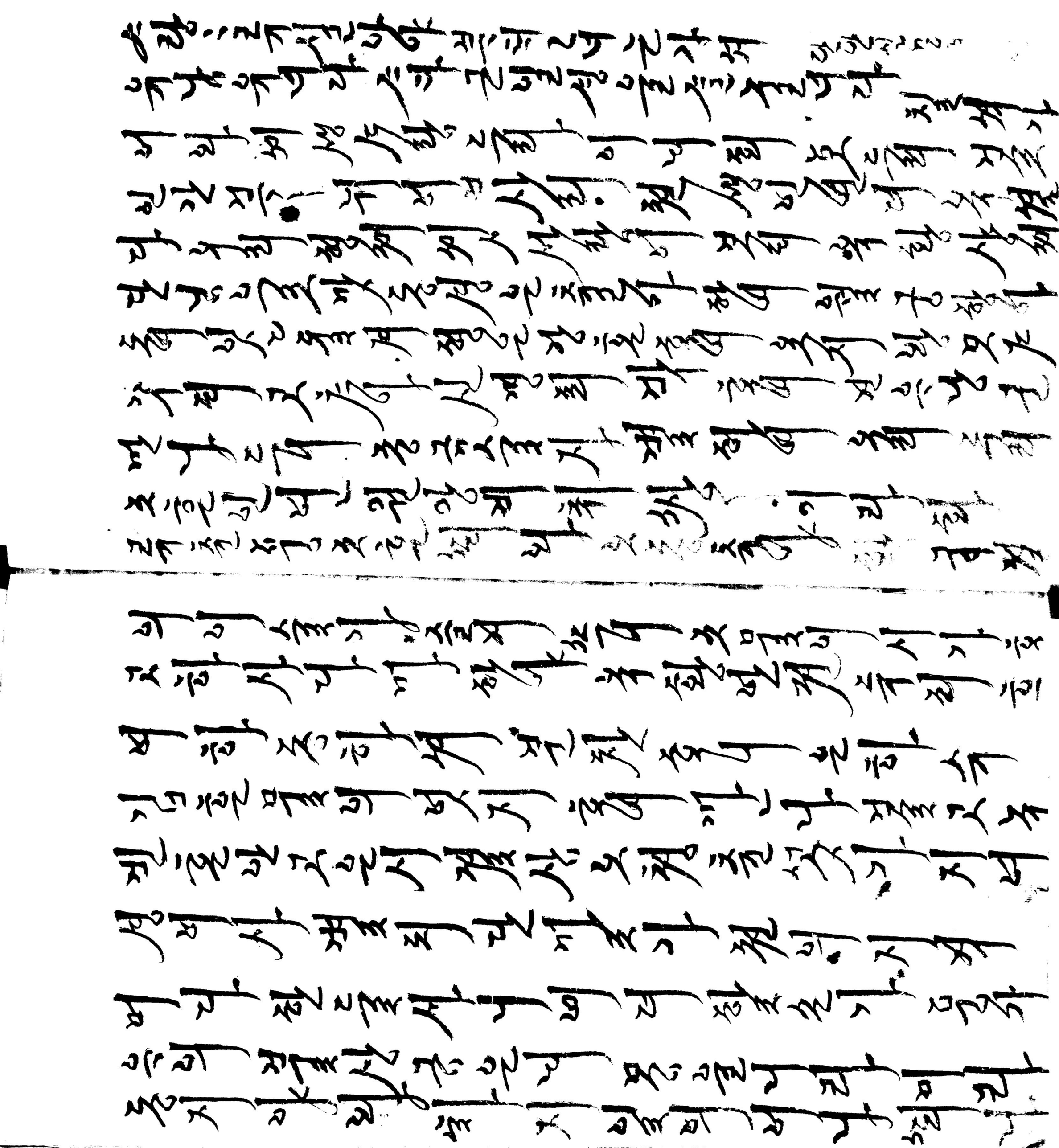
보 넉 ᄂᆞᆫ 가 슴 속 ᄂᆡ 못 슬 기 ᄇᆞ 히 ᄯᅢ 사 ᄂᆞᆫ 후 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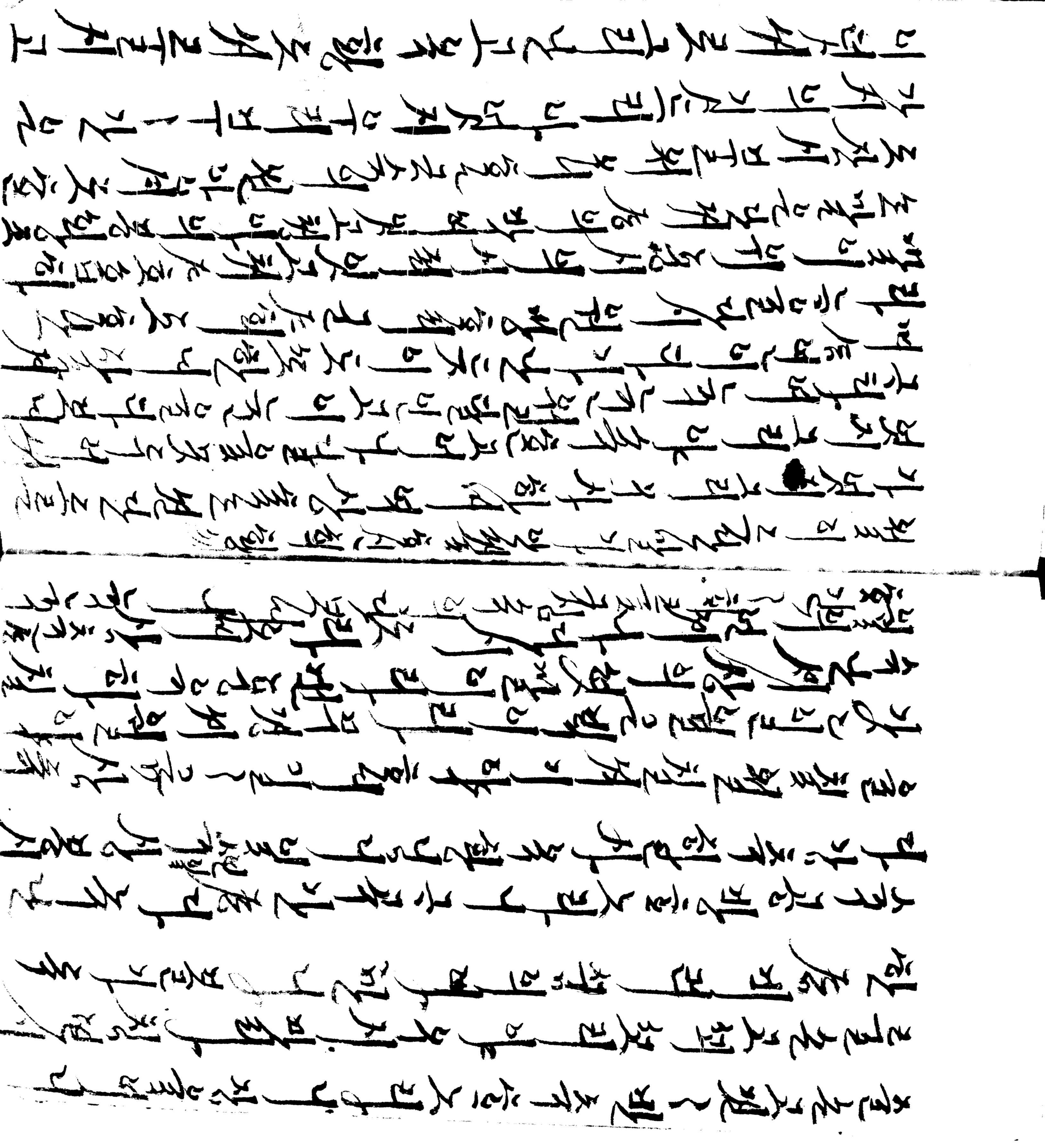
송 ᄉᆞᆨ ᄃᆞᆫ ᄂᆞᆫ 무 ᄉᆞᆯ 고 ᄂᆞᆯ 녀 ᄒᆞᆫ 흔 ᄀᆞ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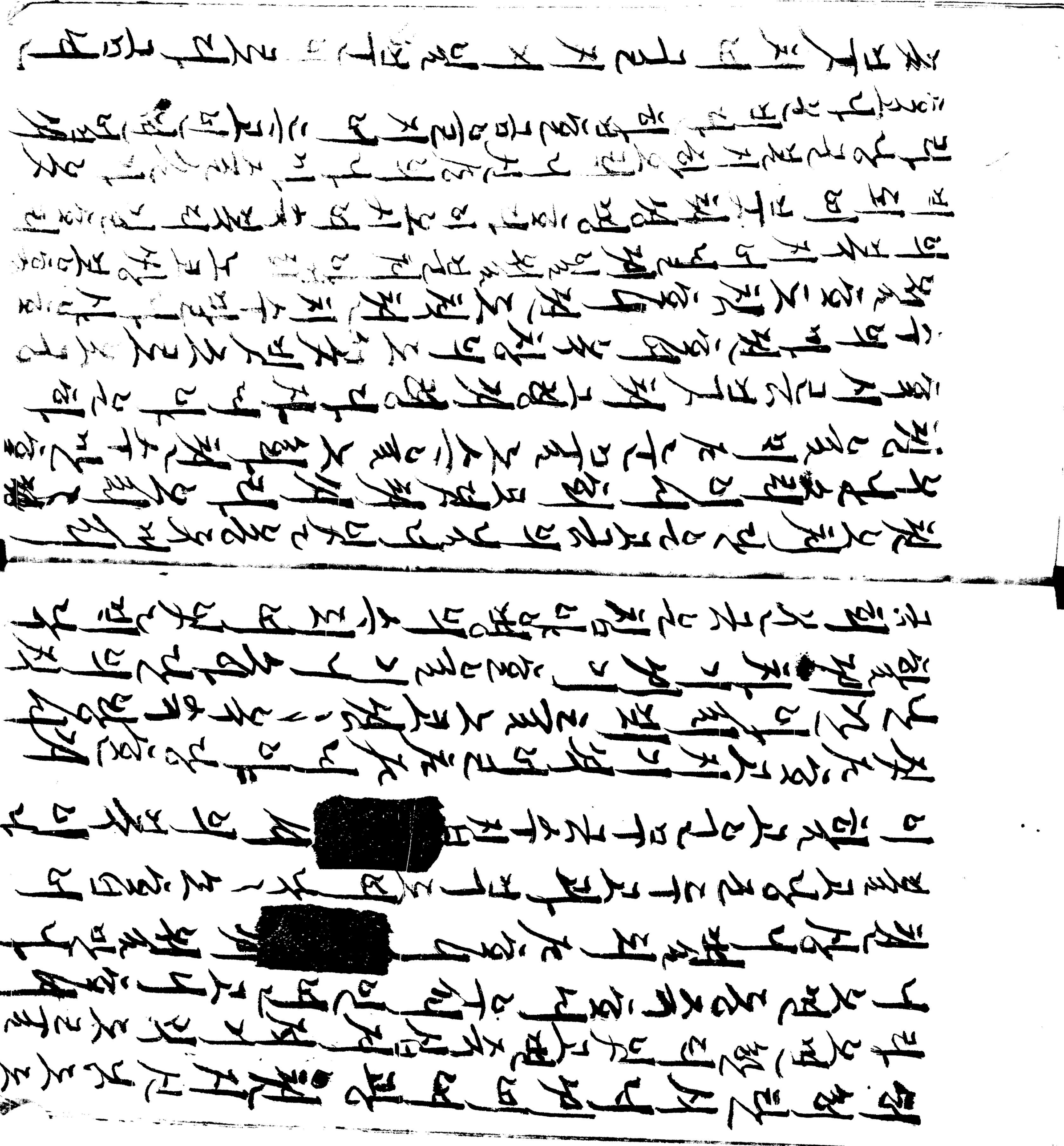
시 ᄉᆞᆯ 이 오 리 ᄒᆞᆫ ᄎᆞ ᄒᆞ 셔 연 히 나 가 노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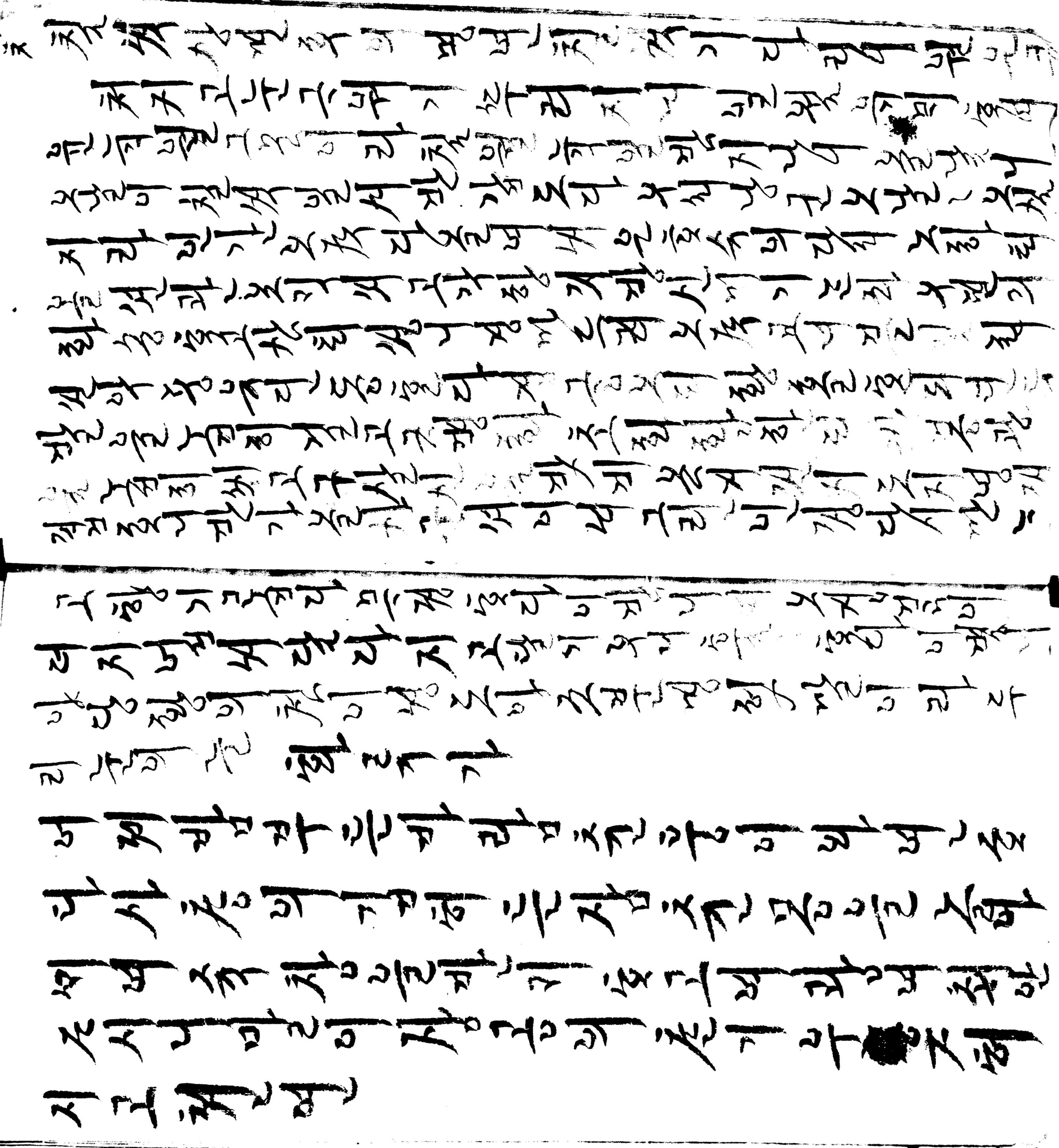
도ᄂᆞᆫ여ᄃᆞᆯ나폐ᄂᆞᆫ가 상영의 식ᄒᆞᆫ에ᄂᆞᆫ
(ᄉᆞᆼᄒᆡ화예)
ᄀ쳔ᄉᆞᆺ치피여 ᄎᆞᆯ난ᄒᆞᆫ 봄ᄃᆞᆼ산의
상혜화ᄇᆡᆺᄲᅧᆯ기 ᄀᆞᆯ흔가지시서 ᄀᆞᆯᄂᆞᆫ
웃리의 ᄒᆞᆼ낙의가 (그네)ᄀᆞᆯ며 ᄂᆞ리ᄉᆡᆯ
다ᄅᆞᆫ 나ᄂᆞᆫ 쇄와셔 울고스ᄀᆡ ᄀᆞᆯ잇ᄀᆡᄂᆞᆫ 노ᄂᆞᆫ녈서의
ᄒᆞᆫ가시 셧치나ᄀᆞ고 ᄒᆞᆫᄉᆞ의 숨ᄒᆞᆫ아나야
피여잇ᄂᆞᆫ어ᄉᆞ리여셧 글이ᄒᆞᆼ냥ᄒᆞᆫ면
냥쳔을 바라보ᄂᆞᆫ ᄆᆞᆯᄂᆞᆯ 비스ᄆᆡ서 ᄋᆞ야
ᄀ셔 ᄒᆞᆫ녀 ᄋᆞ라 ᄇᆡ되 ᄀᆞᆯᄉᆞᆫᄂᆞᆫ ᄀᆞᆯᄀᆡ실
ᄉᆞᆷᄂᆞ ᄒᆞᆫ그 ᄅᆡ연ᄂᆞᆫ안 ᄭᆞᆫᄂᆡᆺ숨
ᄉᆞ라 ᄇᆡᄂᆡ셕 ᄋᆞᆫ [illegible]

술고다세ᄆᆡ이야 ᄲᅧᆯ봄오라와서
아ᄂᆞᆫᄉᆞᆯ되 ᄉᆞᆯᄉᆞᆺ치되ᄂᆞᆫ이ᄉᆞ져 ᄉᆞ절이되ᄂᆞᆫ
년당가ᄌᆞᆺ결옥긔ᄒᆞᆫ쌍 쇠ᄂᆞᆫ져의
긴쳔방ᄇᆡ ᄌᆞᆯᄊᆞᆺ지꼬라 ᄲᅵᆺᄉᆡᆨ을
온연봄ᄎᆞ ᄉᆞᆺ낭기우걸화 술긔ᄂᆞᆫ세
봄비ᄉᆞᆺᄎᆞᆫ바다가ᄉᆞᆺ고(인)이나 ᄒᆞ화 ᄎᆞᆼᄒᆞᆫ야
셕긔(기실)개 ᄉᆞᆯ나라에 ᄉᆞᆷᄉᆞᆫ가절화 ᄅᆞᆼᄅᆞᆼ
기실권실다호혀 원유화계ᄇᆡ란ᄒᆞᆫ시
사랑ᄒᆞᆫ돈유실ᄂᆡ여 조실ᄉᆞᄉᆡᆼ에ᄒᆞᆫ야
각ᄉᆡᆨ지ᄉᆞ절결유ᄉᆞ ᄇᆡᄇᆡᆯ치마라
ᄒᆞᆯ미ᄋᆞᆫ뒤ᄂᆞᆫ 소회ᄂᆞᆫ ᄒᆞᆫ회ᄅᆞᆸ라
ᄊᆞᆫ소ᄊᆡ이ᄇᆞᆺ다가 ᄲᅡᆫᄇᆞᆫ이ᄅᆞ오ᄆᆞᆺ다 ᄉᆞ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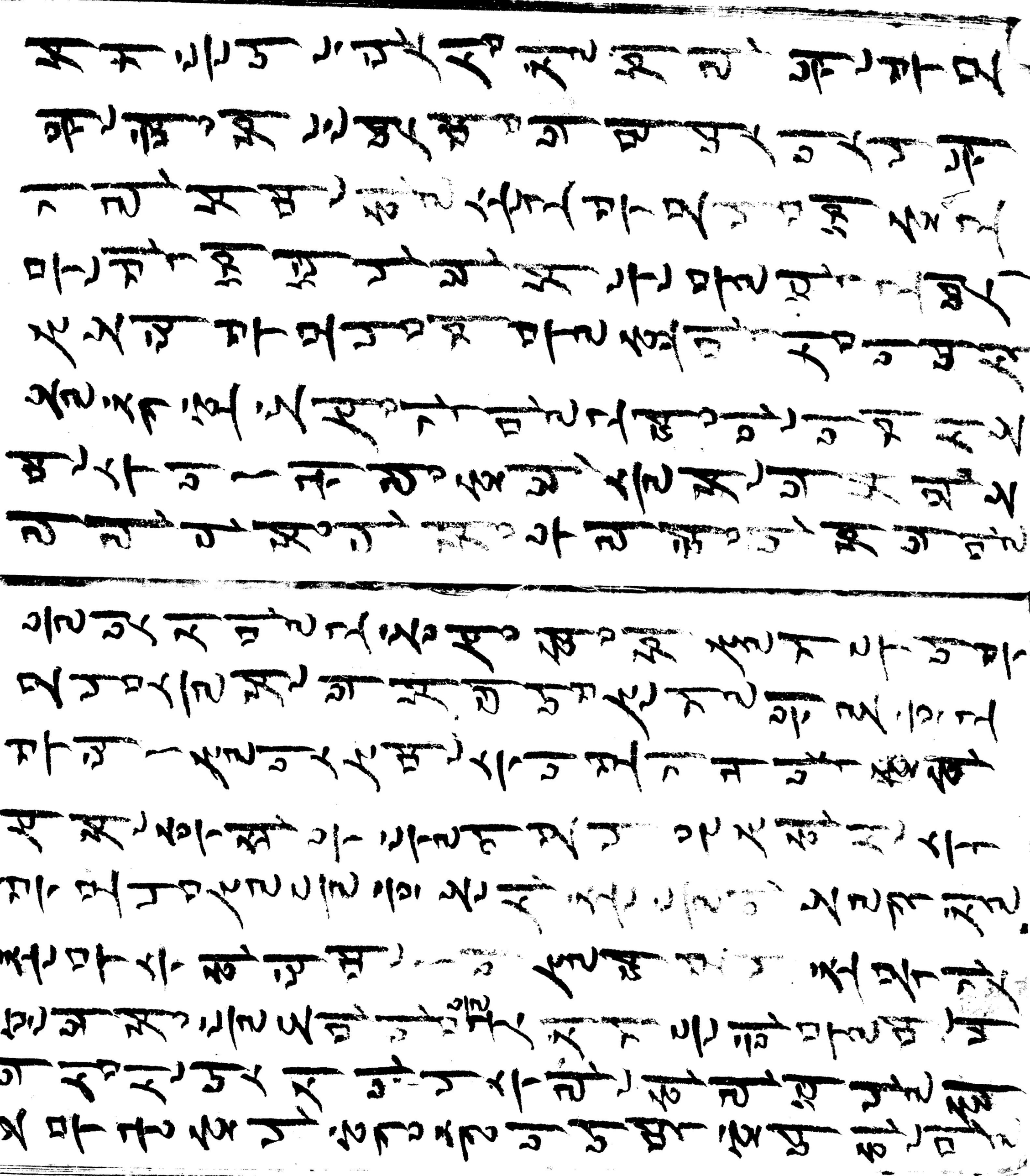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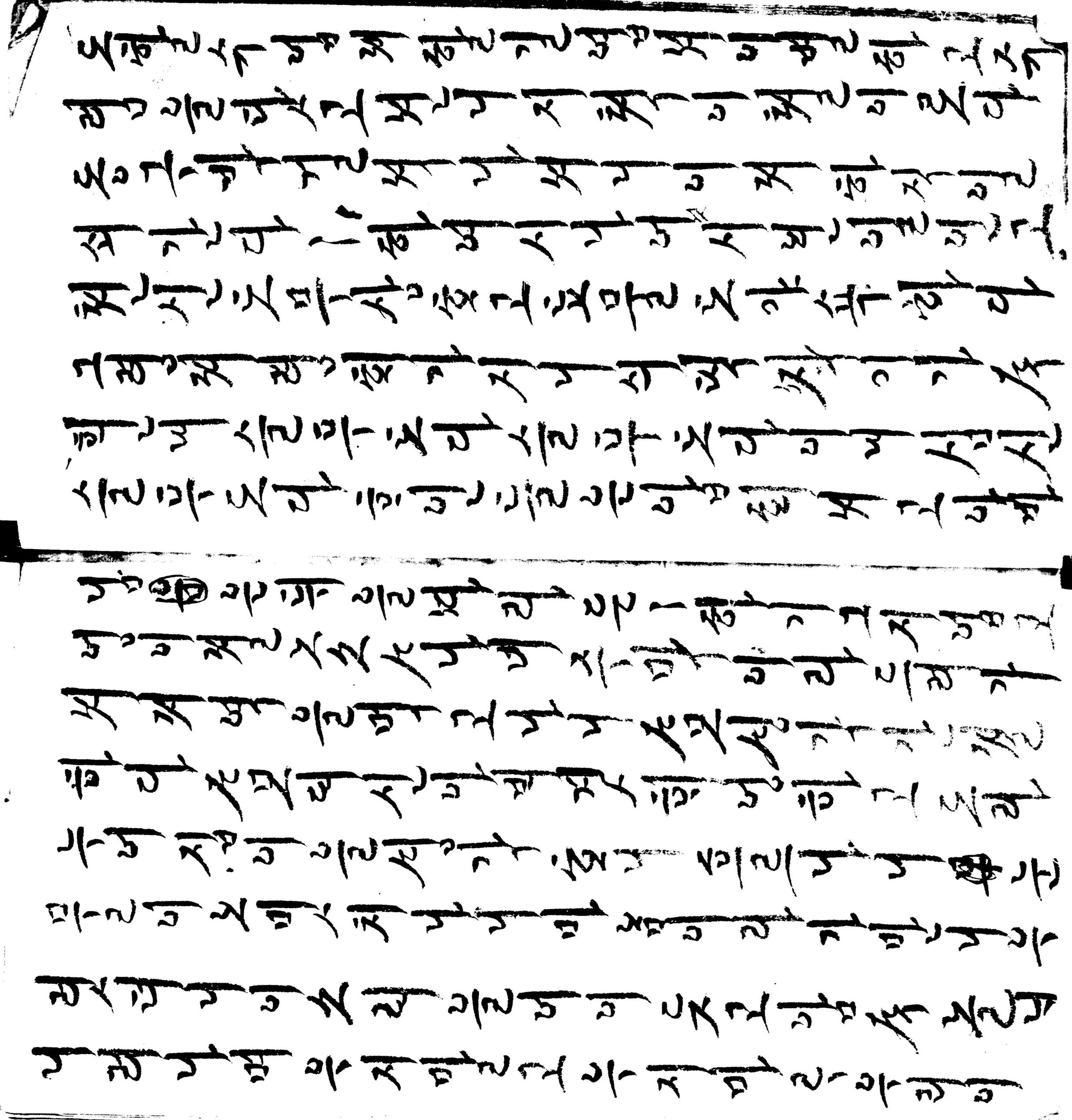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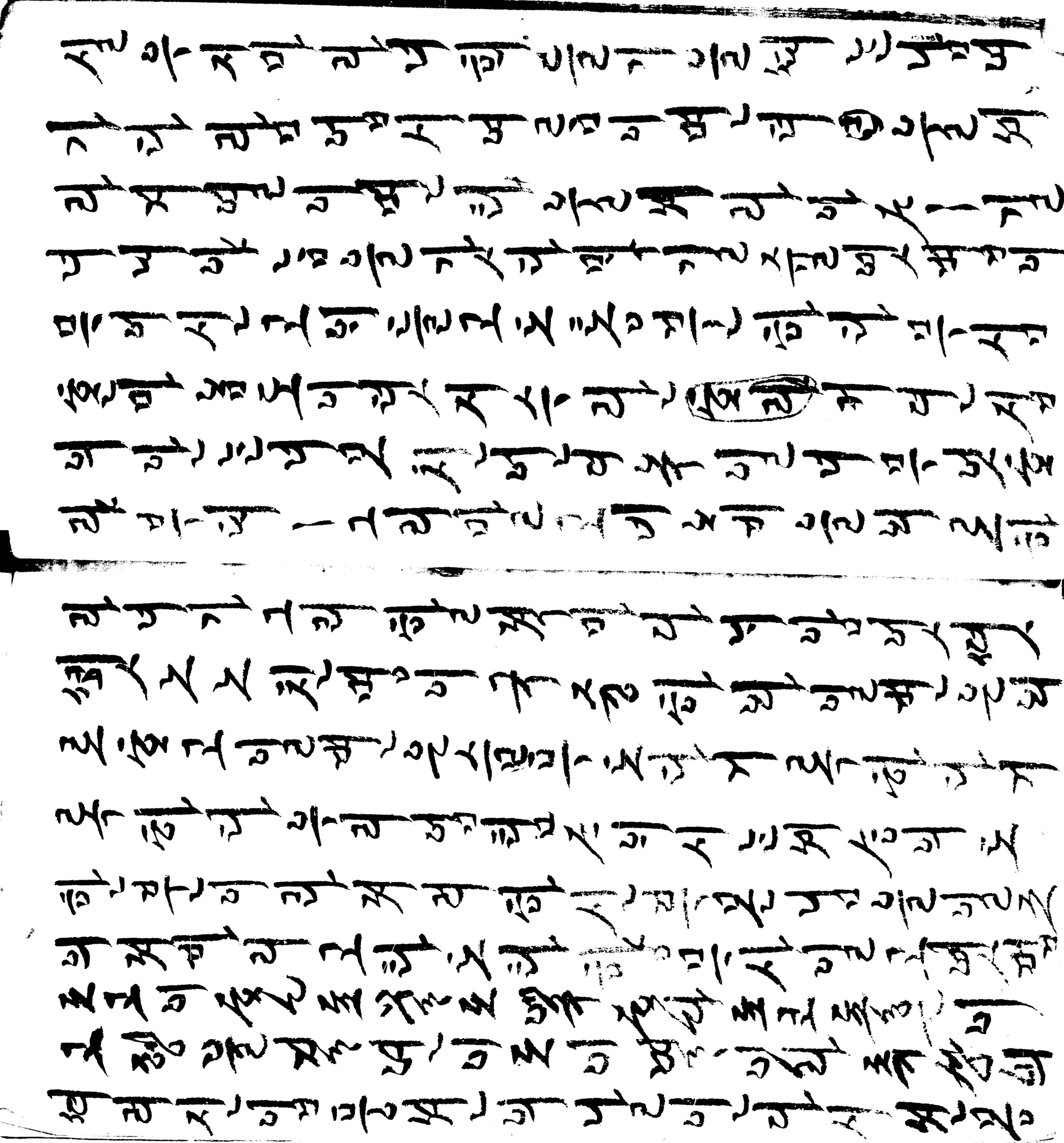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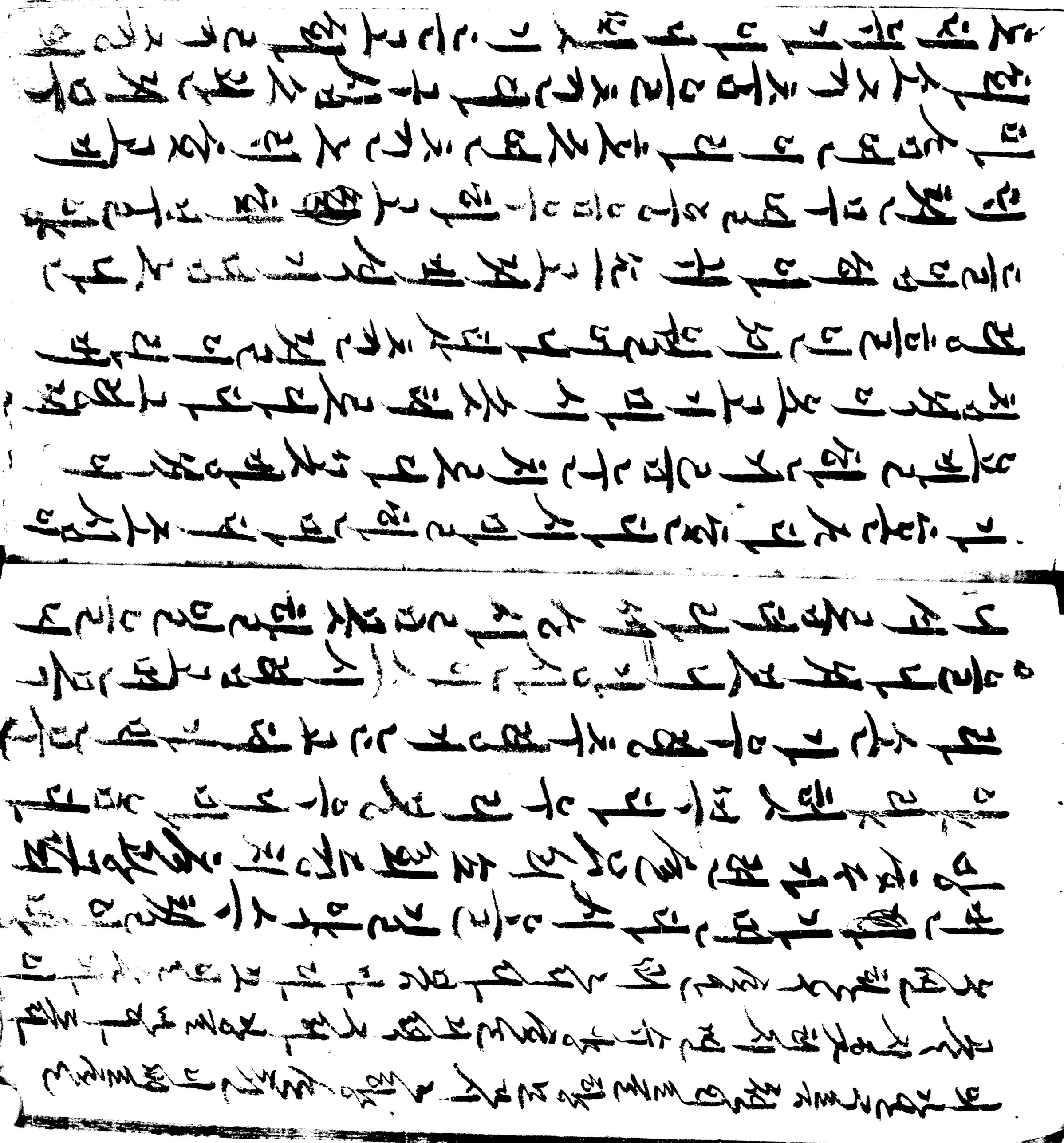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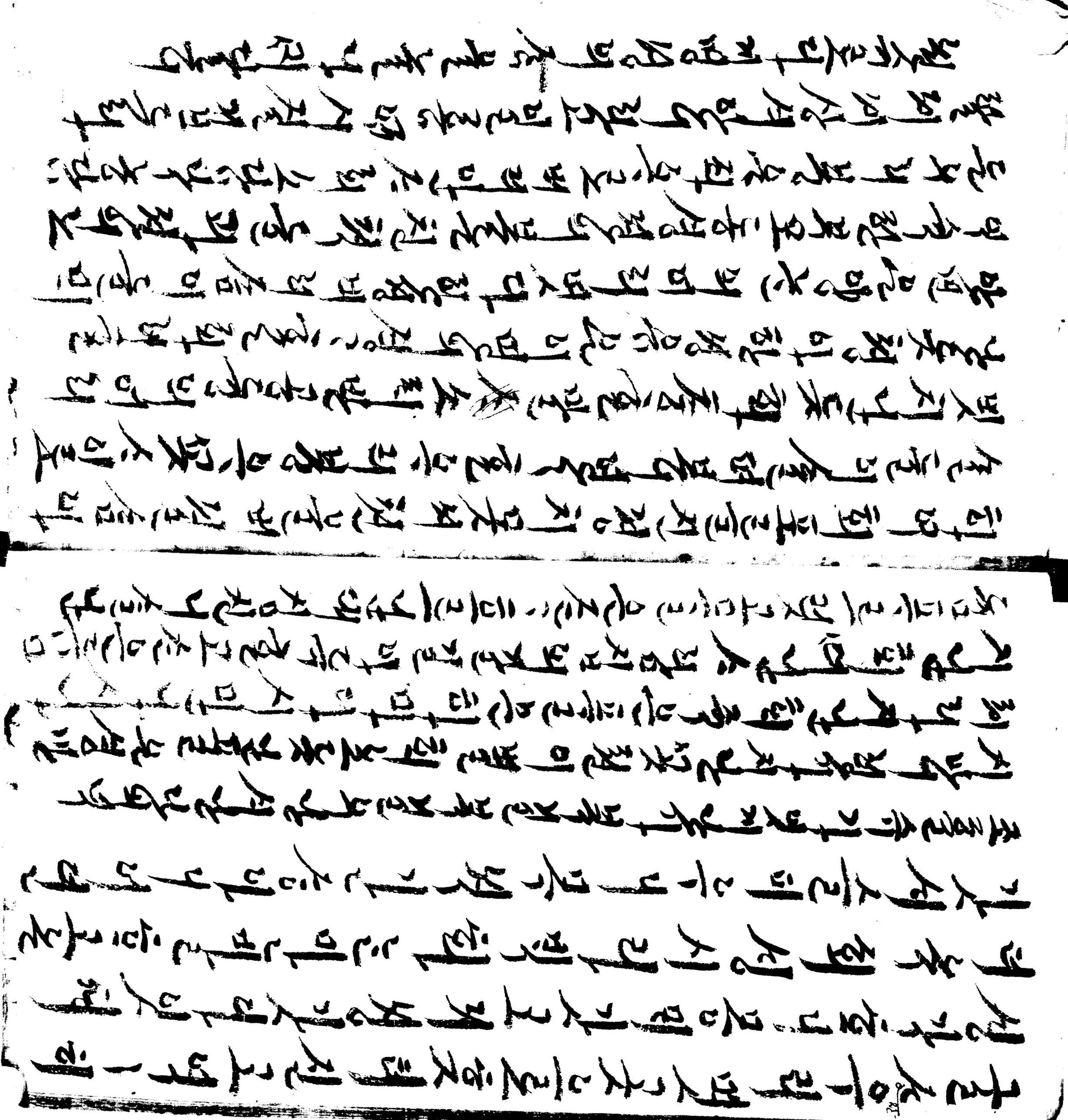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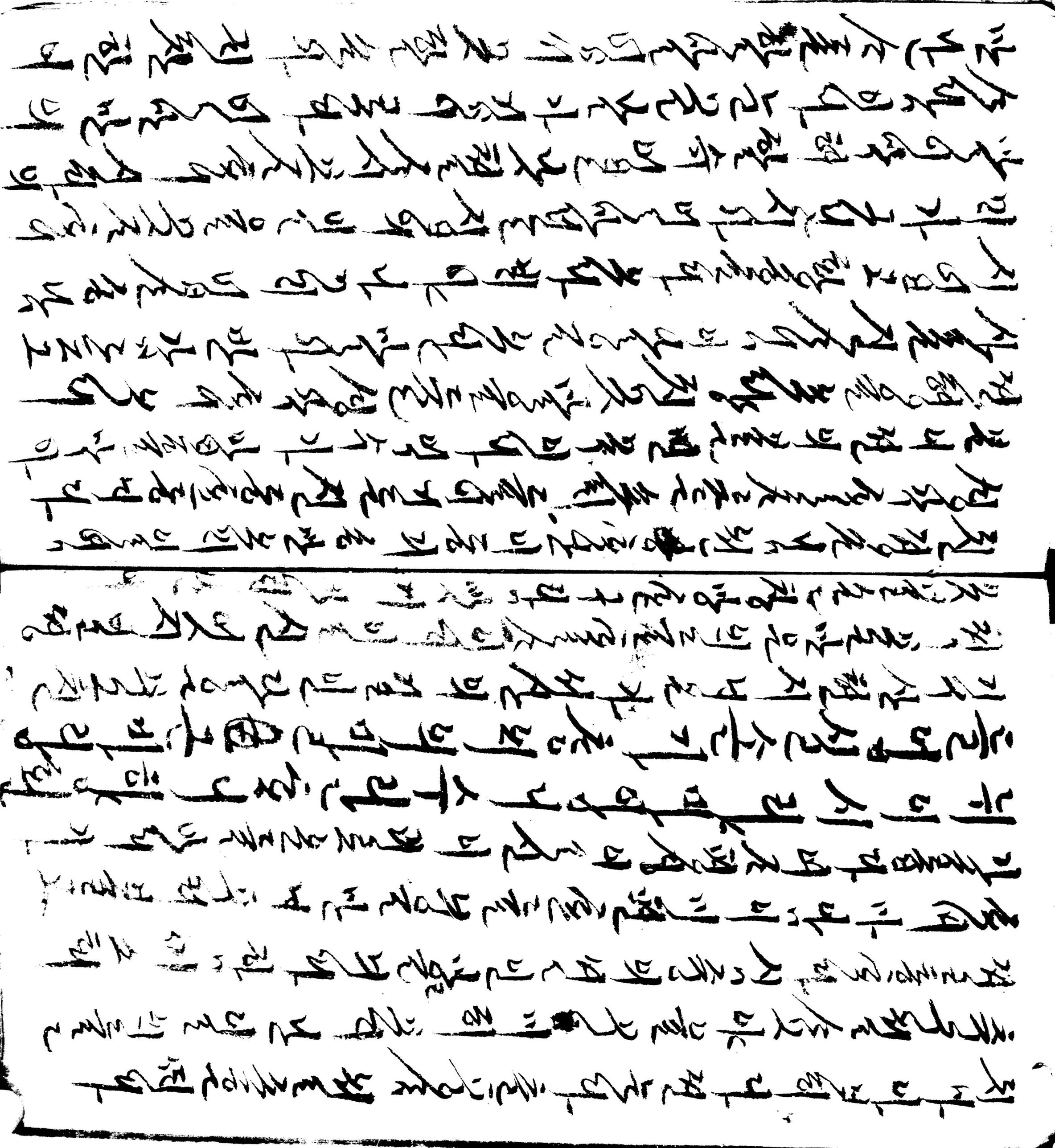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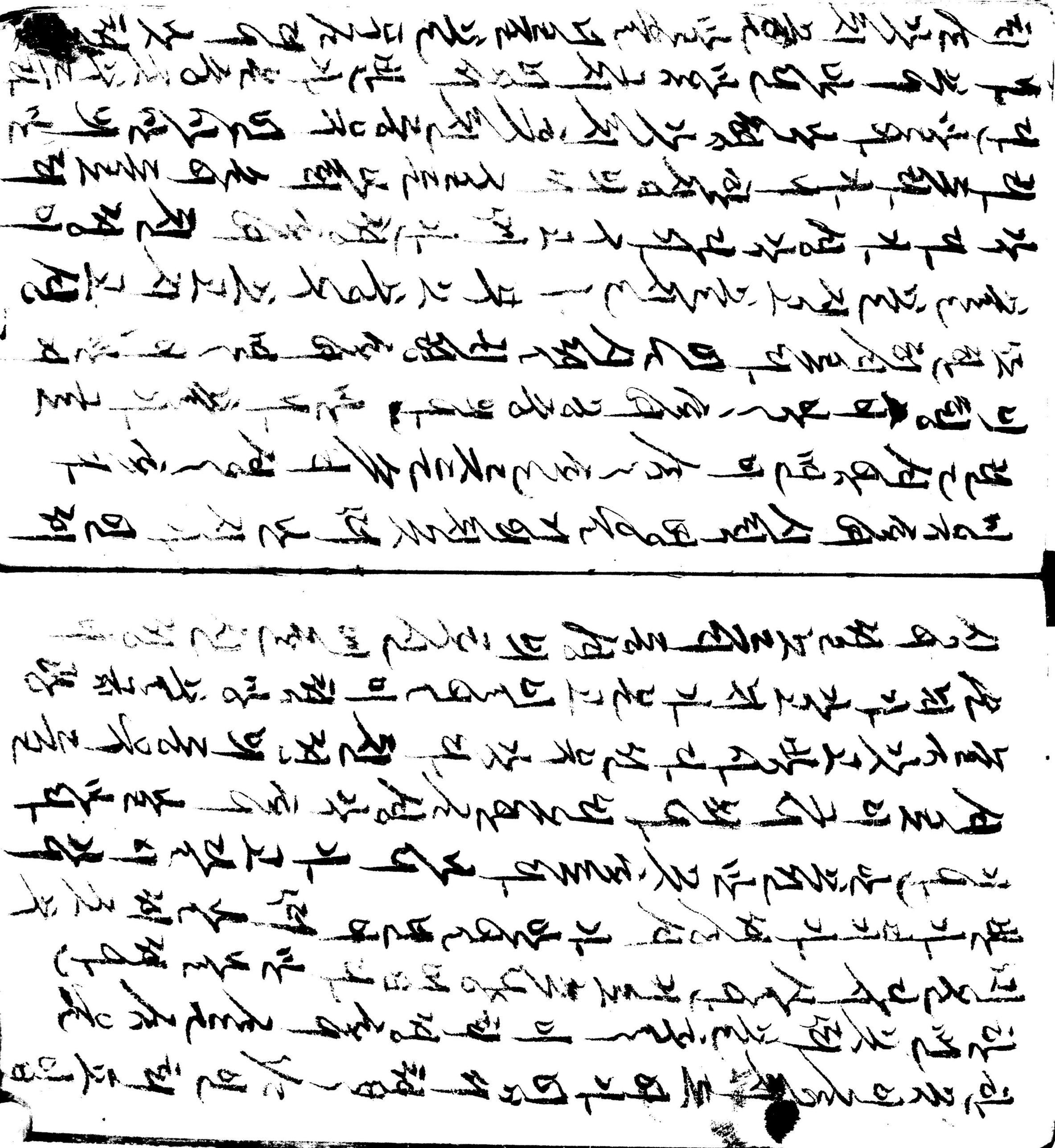






벗층흥풍 벽〃호다 스희비넘시머이
양화롤 이어 고향생각 〃롤 혜아리니 흐시
다내진나 무배다 출롤홀면〃 내정이 호다
니련섬을 덧너되서 낫므〃지보물 져지보순 나니게
므상〃싱인고ᄌ고나면 개물곤ᄉ 개고나면
님불상각 빈〃변 못출인생들 비골무〃동
뵈늘 ᄆ말가 긋가의러다 웃〃기로워뵈
진다사며 〃롬〃붓모 생각것희 소리〃씨인너
시잠시베ᄂ기 〃이〃 칠손가 조고시랑
김흔물ᄉ록 죠심더〃 늑흰일리라 킨
평저ᄂ모ᄂ 싱가〃흔너 회이ᄂ슈ᄂ 순신
호너미ᄊ 곡〃이〃 골사다좇 이라니 술 이희흘
녀울딩회 〃삼〃 년을덕뒤 설ᄒ고〃
리져가 흐나〃곳것 뒤펴추ᄅ다 지닐대ᄆ랴
하〃 블빅〃 수장〃 흘거든 한ᄉ어 보〃 흔〃 안
조치〃헤 충켜〃셰〃삭 바기〃깨가 호〃삭 ᄌ울ᄒ
미ᄉ서 비파너〃 이〃아 비미〃칫다 가ᄌ니 녹붓
다시눈〃개 흥새 눈은 ᄆ뫼 가〃되 벽〃호다
셔흰벗순 롱국리 호나 눈물 비계 노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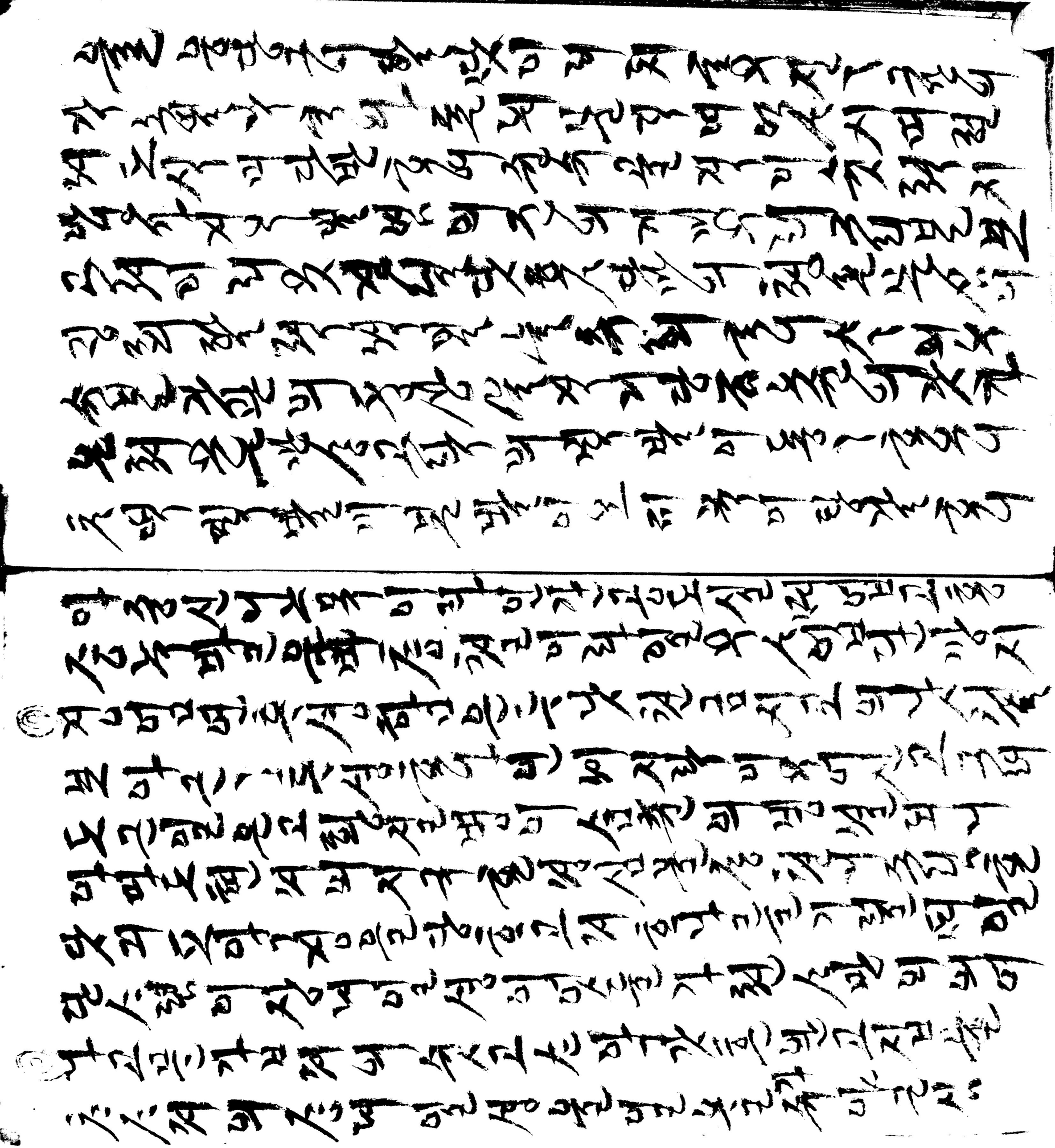
슐부ᄂᆞᆫ 갈ᄂᆞᆫ ᄒᆞ야 부ᄎᆞ 갓ᄐᆞᆫ 돌은 ᄒᆞᆯ고 가ᄉᆞ
치시며 지반 다시 슬길 기ᄲᅮ 다수 라드미
나사 ᄌᆞᆫ 미곳 더셔 ᄉᆞᆼᄒᆞᆫ고 ᄒᆞ여가 ᄆᆞᆺ ᄇᆞᆯ 간다
부ᄃᆞᆺ ᄉᆞᆯ듯 ᄒᆞᆫ ᄒᆞᄂᆞᆼ 이ᄉᆞᆫ ᄉᆞᆯ혹 ᄇᆞᆫ ᄒᆞᆫ ᄒᆞ기
ᄒᆞᆫᄌᆞᆫ 깁흔 졍은 미귀를 시샤 ᄲᅡ히 미ᄌᆞ여 시지서
미ᄎᆞᆺ 되다 ᄒᆞᆫᄃᆞᆫ 친가 비 비히ᄉᆞᆯ 소ᄌᆞ 오ᄆᆞᆺ ᄒᆞ여ᄂᆞᆫ
다시 ᄆᆞᆫ 바 ᄆᆞᄋᆞᆷ 비ᄒᆡᆼ 미 ᄒᆞᆫ 쥬지ᄂᆞᆫ 히ᄉᆞᆫ ᄃᆞᄂᆞᆺ 득
슈흔 ᄒᆞ미 ᄆᆡ 니ᄅᆞᆫ ᄋᆞᆫ ᄆᆞ 쇼ᄃᆡ 흔 셰에 나시 ᄀᆡ
ᄂᆡ 보고 슈ᄒᆡ 며 디로다 씨고 미ᄃᆡ게 ᄒᆞᄋᆞᆼ ᄒᆞ오ᄃᆡ
ᄒᆞᆫᄂᆞᆫ 돈 ᄒᆞᆫ ᄉᆞ 발 보ᄒᆞ ᄒᆞᆫ ... 가ᄂᆞᆫ ᄒᆞᆫᄃᆡ

시ᄒᆞᆯ 비 비로 쳡ᄒᆞ흔 백년 영화ᄒᆞ여 로다

ᄇᆞᆫ ᄉᆞᆼ 현셔 ᄒᆞᆫ쟝

일젼 되다 보것 채며 니 바다 보사 ᄂᆞᆫ가 니라
ᄌᆞᆼ거ᄂᆞᆫ 귀되쉬 ᄉᆞᆼ셔 진평 곳여 재ᄂᆞᆫ 니곳 허 ᄀᆞᆺᄉᆞ
시흔은 조의 신현의 세부리 ᄇᆞᆫ ᄉᆞᆺᄂᆞᆫ 글ᄉᆞ 시일
이며 샤ᄌᆞᆨᄒᆞ 거ᄲᅥᆫ ᄌᆞᆫ 슈ᄒᆞ 바다 보ᄒᆞᆫ회
되년 슈슈 밋굴 갑흔 되조 관이하 쳔강이아 지졸
니ᄂᆞᆫ ᄒᆞ로ᄉᆞ ᄒᆞ쇼 슈ᄒᆞᄆᆞ 달ᄆᆡ 되의 부쳔조
도분 쳥ᄒᆞᆫᄐᆡ 무ᄒᆞ여 ᄒᆞ ᄇᆞᆫ져 인연ᄃᆡ 신반가ᄋᆞ
바누 코부니 미ᄒᆞᆫ 슈시며 가이 ᄌᆞᆨᄒᆞᆫ 니긔회이
ᄒᆞ슈가 녁쳘ᄒᆞᆫ ᄂᆞ 오지 한 쳔시 쳔시 ᄉᆞ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충ㅅ분 반기신과 상원수 비롯기를지
제발 비로소 이라
금줄아
은줄아
칠보 천금 구원줄아

온갖줄아
금갖줄아
칠보 천금 구원줄아
천상 인간 지상줄아
항아 국의 선줄아
지화자 지 의 비 북동아
칠보 보단 줄 꼬리줄아
옥 비단 처녀줄아
만첩 산중 복고줄아